

韓國音樂學 關係 論文作成을 爲한 한 指針(Ⅲ)

— 研究計劃書 作成을 中心으로 —

宋 芳 松

〈嶺南大學校 音樂大學〉

《차 레》

- | | |
|----------------------|-------------------------------|
| 1. 머리말 : 研究計劃書 概說 | 5. 研究範圍 等 其他 事項 敘述 |
| 2. 問題提起 및 研究의 重要性 敘述 | 6. 마 무 리 |
| 3. 研究目的 敘述 | 附錄 : McCune-Reischauer System |
| 4. 研究方法 敘述 | 에 依한 한글의 로마字 表記法 |

1. 머리말 : 研究計劃書 概說

지난 봄 本人은 國立國樂院의 公職生活을 清算하고 嶺南大學校로 자리를 옮긴 후 碩士學位論文을 준비하는 大學院生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師範大學 所屬의 音樂學專攻 大學院生들에게 碩士學位 論文의 준비 관계로 豫備 課題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서 공부를 시키면서 느낀 바는 研究計劃書 作成要領을 그들에게 教育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時急하다는 사실이었다. 音樂의 理論的인 面보다도 實技를 專攻하고 있는 그들에게 自己 演奏 專攻을 어떻게 잘 해 내느냐에 대한 관심 뿐이었지, 自己 專攻分野의 音樂을 研究하는 일은 너무나 生疎한 일이었다. 이렇듯 實技演奏 分野에만 정신을 쏟아온 大學院生들이 碩士學位過程을 원만히 끝 마치기 위하여 반드시 마련해야 할 研究論文을 준비하는 일에는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傾向이 있는 듯한 印象을 받았다. 이러한 印象은 洋樂을 專攻하는 學生들에게서 뿐 아니라 本人이 國立國樂院에 在職하면서 國樂 專攻의 大學院生을 지도할 때에도 이미 느꼈던 바였다. 현재 音樂을 전공하고 있는 大學院生들에게 自己 專攻分野의 學位論文을 준비하는 課題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課題를 해결해 나가는 길잡이로 研究計劃書 作成要領에 관한 글이 後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本人은 믿고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研究計劃書 作成은 비록 大學院生들의 碩士學位論文의 준비를 위해서 뿐 아니라 大學校의

研究所 또는 學術研究機關에서 音樂을 主題로 研究를 申請할 때에는 반드시 要求되는 課題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目的은 音樂學에 關係되는 研究를 해야 할 사람에게 多少나마 그들의 研究過程에서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研究計劃書에 包含되는 중요한 事項의 대부분이 緒論 敘述 때 거기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은 結果적으로 緒論 作成에 必要한 過程을 설명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筆者는 이미 韓國音樂學 關係 論文作成에 관한 글을 2회에 걸쳐 발표한 바 있으니, 첫째 것은 本論 作成 時 論文의 正確성을 基하기 爲하여 必히 要求되는 註釋의 形式에 관한 글⁽¹⁾이며, 두번째 글은 論文作成 이전에 準備段階의 研究方法에 關聯된 本論의 줄거리인 概要 作成에 關하여 論議한 것⁽²⁾이다. 이번에 세번째로 발표되는 이 글을 먼저 발표된 글을 참고하면서 읽어갈 때, 그는 研究計劃書 作成要領에 對한 論議가 韓國音樂學을 體系있게 공부하려는 後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研究主題의 選定 이후 研究資料 蒐集과 分析·整理가 大略적으로나마 이루어져 研究概要의 輪廓이 어느 程度로 드러났을 때, 즉 研究를 爲한 자기 나름대로의 豫備知識을 얼마만큼 갖추었을 때 作成되어야 하는 글이 研究計劃書이다.

그러나 大學校의 사정과 개인의 學問的 知識 정도에 따라서 研究計劃書 作成은 研究主題의 選定 및 資料의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初學者인 大學院生들의 경우에는 碩士論文에서 몸통 부분에 該當되는 本論의 概要作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연구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이 無理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本論에서 展開해 나갈 研究主題에 對한 妥當性 등이 確認되지도 않은 채 研究計劃을 세우고 그 계획을 글로 쓴다는 일에 無理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木材가 많은 지역에서 韓屋 建立計劃을 세워야 마땅한 일인데 콩크리트로 洋屋을 짓겠다는 일과 마찬가지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研究計劃書는 勿論 연구자 스스로에 의해서 作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획서를 만들 때 선배나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助言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연구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연구자는 그것을 論文 指導教授에게 提出하여 研究主題와 計劃을 認定받은 후에야만 그는 自己의 연구주제를 계획대로 遂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大學院의 履修過程에서 研究計劃書 作成이 完了되어 통과되면 그것은 碩士學位 論文 준비의 3분의2 이상을 마친

(1) 宋芳松, “한국음악학 관계 논문작성을 위한 한 지침(Ⅰ)——주석의 형식을 중심으로——”, 『民族音樂學』(서울: 서울大學校 音大附設 東洋音樂研究所, 1978), 第2輯, pp.45-75.

(2) 宋芳松, “韓國音樂學 關係 論文作成을 爲한 한 指針(Ⅱ)——準備段階의 研究方法을 中心으로——”, 『民族音樂學』(1979), 第3輯, pp.37-79.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실 美國大學校의 경우에 研究計劃書 作成은 碩士나 博士學位 過程에서 반드시 要求되는 중요한 課題이기도 하다.

研究計劃書에 必須的으로 包含되어야 할 事項은 첫째 研究主題와 關聯된 問題에 對한 敘述 즉 問題提起, 둘째 어느 特殊한 研究主題를 選擇하게 된 까닭 즉 研究目的, 그리고 셋째 研究主題를 내 나름대로 어떻게 遂行해 나가겠다는 研究方法 이상 세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위의 세가지 事項은 韓國音樂이나 西洋音樂에 關한 研究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適用되는 內容들이다. 問題提起·研究目的·研究方法 이상 세가지 內容의 敘述 이외의 研究의 重要性和 意義, 研究史 概觀, 研究範圍, 研究內容概要, 特殊 學術用語 定義 등에 對한 說明이 研究主題 또는 研究者의 생각에 따라서 研究計劃書에 包含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을 敘述함에 있어서 우선 위의 세가지를 한 項目씩 나누어 설명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들은 한 항목에서 모두 한꺼번에 言及된 것이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參考한 책은 Glen Haydon *Introduction to Musicology* (New York: Prentice-Hall, Inc., 1941)에서 第10章 “Problems and Methods of Historical Research” 및 Ruth T. Watanabe의 *Introduction to Music Resear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7)에서 第13章 “Organization,” 그리고 黃環植의 『論文作成의 要領과 實際』 (서울: 志學社, 1976)에서 第3章 “組織 및 構成” 및 李康淑의 『음악학의 본질』 (The Nature of Musicology 서울大學校 音樂大學 1980) 등이다. 위의 參考文獻을 읽는 한편 本人이 博士學位 論文 準備 時에 얻은 經驗을 바탕으로 韓國音樂學의 경우에 適合하도록 글을 構成하느라고 努力하였다. 이 글을 읽은 후 더 많은 參考를 願하는 大學院生들에게 本人이 參考한 위의 文獻들을 직접 찾아보도록 勸告하는 바이다.

끝으로 碩士論文의 英文概要 作成 때 언제나 부딪치는 한글의 로마字 表記法에 따르는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McCune-Reischauer System을 實例와 함께 附錄에서 紹介하려고 한다. 이 system은 美國의 東洋學者에 의해서 開發되었으나, 첫째 한글의 發音을 바탕으로 表記했다는 合理性, 둘째 이미 西洋의 東洋學界에서 공식적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다는 便利性 이상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소개하려는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 文敎部에서 제정한 로마字 表記法이 있지만, 外國의 東洋學者들에게는 生疎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學界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형편이고 오히려 McCune-Reischauer System이 더 널리 쓰이는 傾向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된 소개된 것이 英文概要 作成 때 後學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問題提起 및 研究의 重要性 敘述

筆者는 이미 “研究主題의 選定”이란 論議에서 論文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研究를 위해서 무슨 問題를 提示하여 論다는 뜻으로 解釋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研究主題의 選定은 問題의 發見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따라서 問題의 發見이 研究의 出發이라고 했다”고 說明한 바 있었다⁽³⁾. 問題提起란 말이 一般學界의 著述이나 學位論文에서 흔히 쓰이고 있지만, 韓國音樂學界에서는 비교적 生疎하게 들리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쉬운 말로 풀어 보면, 그 말의 글자 뜻대로 ‘研究·論議하여 解決해야 할 事項에 對하여 意見을 붙이여 議論할 것을 提出함⁽⁴⁾’을 뜻한다. 곧 研究하여 解決해야 할 바 즉 研究主題에 包含된 問題點을 要領있게 敘述하는 것이 問題提起라고 하겠다. 그러면 研究해서 解決해야 할 事項 즉 問題로 삼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에 對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韓國音樂史學 分野에서 問題로 提起될 만한 事項들의 實例가 이미 筆者에 依해서 研究主題로 選定될 수 있는 것으로 列擧된 바 있다.⁽⁵⁾ 지난번에 指摘된 네가지 問題視될만한 것 중에서 가령 『梁琴新譜』(1610) 時代에 쓰인 四調에 對한 分析에서 얻은 結果가 다른 樂曲에서 어떻게 歷史的으로 變遷되었을까? 라는 問題를 提起하였다고 假定하자. 이런 問題를 提起한 研究者는 李惠求博士께서 이미 中大葉이란 樂曲을 分析해서 梁琴新譜의 四調를 밝히셨음을 파악하고, “A”라는 다른 樂曲에서 쓰인 旋法의 用例를 『梁琴新譜』 이후의 古樂譜를 通해서 蒐集했으며, 旋法의 歷史的 變遷에 關한 研究主題의 選定을 마쳤다고 역시 假定하자. 그렇다면 그는 자기 研究主題에 對한 問題提起를 다음의 [보기] 1에서 처럼 敘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1

韓國傳統音樂의 體系의 理解를 위하여 音樂學者들은 우리음악의 歷史的 變遷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 오고 있다. 우리 음악의 역사적 변천 중에서 旋法의 變遷過程에 대한 연구는 樂曲 및 음악 양식의 역사적 변천과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음악학자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었다. 그러므로 17世紀 초에 쓰인 旋法에 대한 研究가 李惠求博士에 의해서 1943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고⁽⁶⁾ 그 이후 現行 歌曲에서 쓰인 羽調⁽⁷⁾와 界面調⁽⁸⁾의 旋法에 對한 연구논문이 계속해

(3) 宋芳松, “韓國音樂學 關係 論文 作成을 爲한 한 指針(Ⅱ).”, 『民族音樂學』, 第3輯, p. 39.

(4) 이희승, “問題·提起,” 『국어대사전』(서울: 民衆書館, 1961), p. 1042 및 p. 2560.

(5) 註2의 pp. 40-43 參照.

(6) 李惠求, “梁琴新譜의 四調,” 『田邊先生遷曆記念東亞音樂論叢』(東京: 山一書房, 昭和 18[1943]) pp. 789-822. 이 論文은 後에 한글로 다시 쓰여서 著者의 『韓國音樂研究』(서울: 國民音樂研究會, 1957), pp. 26-47에 復刊된.

서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이상 세편의 논문들은 모두 數大葉이란 樂曲과 同系統인 中大葉 및 現行 歌曲 初數大葉의 分析을 바탕으로 旋法의 理論을 論議한 글이다. 그러면 中大葉이나 數大葉 이의 다른 樂曲에서 쓰인 旋法도 歌曲의 경우에서처럼 같은 歷史的 變遷過程을 거쳤을까? 라는 의문이 問題로 提起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보기] 1은 어디까지나 問題提起의 敘述에 대한 實例를 위해서 假想 아래 筆者가 만들어 낸 것임을 喚起시키는 바이다. 다음으로 問題提起라는 다른 實例를 韓國民俗音樂學의 研究分野에서 골라서 列擧하기로 한다. 가령 慶尙北道 地方의 民謠의 音階와 旋法을 學問的으로 體系있게 定立하려는 研究者가 있다고 假定하자. 그는 現地調查方法論에 對한 研究書⁽⁹⁾를 찾아서 탐독하고 概括的 調查를 거쳐 集約的 調查를 막 끝내고 난 후 自己의 研究主題 選定도 마치고 研究計劃書를 作成하는 단계에서 問題提起를 다음의 [보기] 2에서 처럼 敘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2

우리나라 傳統音樂에 對한 研究가 근대에 이르러 國學의 어느 分野에 못지 않게 활발히 進行되고 있으며, 한편 그러한 研究結果가 일반 敎養人을 위한 概論書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韓國音樂의 올바른 理解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旋法과 音階에 關한 理論은 特히 오래 전부터 音樂學者에 依해서 歷史的인 觀點에서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지만,⁽¹⁰⁾ 아직 民俗音樂의 여러 분야에서는 더욱 調査 研究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國樂概論書에 정리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의 旋法이 平調와 界面調 이상 두 가지 뿐이고⁽¹¹⁾ 그 이외의 旋法은 없을까? 라는 의문을 問題로 提起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보기] 1과 [보기] 2에서 나타났듯이 研究者는 스스로 關心의 對象인 研究主題의 問題와 關聯된 일반적인 敘述에서 시작하여 具體的인 물음의 형식으로 이끌어 가는 敘述形式을 취하면서 問題提起를 분명히 설명한 셈이다.

다음으로 問題提起와 關聯해서 주어지는 研究의 必要性 또는 重要性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研究의 必要性이란 스스로가 問題를 提起한 研究主題에 對한 學問的 意義 즉 妥當성을 설명하는 것을 이른다. 그의 研究主題에 對한 學問的 意義라는 것은 그 研究를 통해서

(7) 李惠求, “歌曲의 羽調,” 『서울大學校論文集』(서울, 1954), 第1輯, pp. 102-127. 이 論文도 著者の 『韓國音樂研究』, pp. 49-72에 復刊됨.

(8) 李惠求, “現行 歌曲의 界面調,” 『東方學志』(서울: 延大 東方學研究所, 1957), 第3輯, pp. 195-226. 이 論文은 著者の 『韓國音樂序說』(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7), pp. 357-86에 復刊됨.

(9) 보기를 들면,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學研究室編, 『口碑文學調查方法』.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이 책의 총론을 담당하였던 趙東一教授는 그의 著書 『구비문학의 세계』(서울: 새문社, 1980) pp. 10-110에서 약간 수정하여 다시 실었음. 이 책에서 소개된 外國語의 原書를 또한 구하여 공부했다고 假想한다.

(10) 註 6·7·8의 論文 參照.

(11) 韓萬榮·張師助 共著, “선법(旋法)과 음계(音階),” 『國樂概論』(서울: 韓國國樂學會, 1975), pp. 18-23에 소개된 글을 보기로 들 수 있겠다.

未盡했던 事實을 밝힌다던지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發見함으로써 國樂理論 定立에 寄與하는데서 찾아질 수 있다던지 등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러면 [보기] 1과 [보기] 2와 關聯해서 研究의 必要性을 叙述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보기] 3은 [보기] 1과 關係되고, [보기] 4는 [보기] 2와 關聯되는 것이다.

[보기] 3

이러한 疑問에 對한 學問的 研究는 우리 傳統音樂에 關係된 理解의 폭을 넓혀 줄 것이며 더 나아가서 韓國音樂史學 分野의 研究結果를 새로운 角度에서 確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見地에서 觀察하건대, 本 研究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기] 4

韓國音樂의 旋法 理論에 關해서 學問的 體系를 세우기 위한 音樂史學的 研究는 古樂譜 解讀을 바탕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으나, 이에 비해서 民俗音樂學的 研究는 貧弱한 現地調查方法 때문에 體系의 進行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慶北地方에서 새로운 調查方法에 依해서 採集한 資料를 바탕으로 試圖하려는 本人의 研究는 韓國民俗音樂學 分野에서 意義있는 作業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民謠의 旋法研究 結果를 바탕으로 韓國音樂의 理論 定立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에서 이번 研究의 重要性이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問題提起와 研究의 必要性 또는 重要性에 關한 叙述方法을 韓國音樂史學 및 民俗音樂學 두 分野에서 假想되는 研究主題를 만들어서 例示과 함께 설명하였다. 위의 例示는 어디까지나 이 글의 目的을 위해서 臨時로 만들어진 것에 不過하거니와, 問題提起와 研究의 重要性은 研究者의 關心 또는 研究主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叙述方式으로 論理性 있게 叙述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強調하고 싶은 것은 研究主題에 따르는 問題에 對해서 研究者 스스로 明白하게 認識하고 定義내릴 수 있어야함이 研究計劃書 作成에서 매우 重要하다는 事實이다. 그 까닭은 다음에 論議될 研究主題에 나타난 問題에 따라서 研究目的 및 研究方法이 決定되기 때문이다.

3. 研究目的 叙述

第2項에서 우리는 무엇이 問題인가? 즉 무엇을 研究할 것인가?에 對한 叙述形式을 살펴 보았지만, 여기서는 어느 特定한 研究主題의 問題를 다루어야 할 까닭, 즉 왜 그 問題를 研究하는가? 라는 研究目的 叙述에 關해서 생각할 차례이다.

어떤 問題에 對하여 研究하려는 目的 叙述은 그 問題에 對한 分명한 認識과 定義에 따라

서 決定된다고 이미 위에서 言及된 바 있다. 무슨 學問的 質問 또는 問題에 대해서 알고 있는 意志 혹은 생각 즉 問題意識을 研究者가 똑바로 갖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自己가 選定한 研究主題에 包含된 問題의 實體를 正確하게 把握해야만이 그 問題를 學問的으로 探究해 나가려고 하는 研究目的을 그는 제대로 叙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치 休息을 위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바다로 갈지 또는 산으로 갈지 目的地를 분명히 정해야만이 그가 바라는 目的地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가령 한 여름 바닷가에 가서 시원하게 확 트인 茫茫大海를 바라보면서 疲勞한 心身을 풀어 보고져 맘을 분명하게 定했다면, 東海岸의 江陵이나 南海岸의 釜山 또는 濟州島의 海邊이라는 目的地가 쉽게 決定될 수 있다. 그러나 바닷가도 좋겠지만, 綠陰이 우거진 깊은 산골에서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래를 벗 삼아 잠시나마 어지러운 世上事를 잊고 싶다는 맘이 생긴 상태에서 그가 자기의 생각을 한쪽으로 딱 決定하지 못했다면, 자연히 俗離山으로 갈까? 雪嶽山이 어떨까? 아니면 地異山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싸 하고 밀려 오는 파도 속에 몸을 담구고 갈매기 우는 소리를 듣는 것도 疲勞한 몸과 맘의 休息處로 안성마춤이니 鬱陵島나 巨濟島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등 目的地를 쉽게 찾을 수 없게 된다.

自己의 研究主題와 關聯된 問題의 實體를 正確히 把握해야 만이 研究目的을 쉽게 叙述할 수 있다는 事實이 위의 比喻에 依해서 한층 더 分明해졌으리라고 생각한다. 問題를 올바르게 把握한다는 말은 뚜렷한 問題認識이란 用語로 代置될 수 있겠다. 어떠한 무엇에 對하여 알고 있는 마음 즉 問題에 對한 分明한 認識은 研究를 위한 調查作業을 誘發시킨다. 研究準備段階에 따르는 이러한 調查作業에 關해서는 이미 研究主題를 選定하는 過程 및 研究資料 蒐集 過程에서 論議된 바⁽¹²⁾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反復을 피하려고 한다. 다만 問題의 實體에 對하여 분명하게 把握한 이후에야만이 그 問題의 解決을 爲한 研究目的이 項目에서 言及된 問題提起와 關聯되었다는 點을 여기서 強調하려는 것이다.

要件대 問題를 明確히 알고 있어야만이 問題提起를 正確하게 할 수 있고, 提起된 問題를 바르게 定義내릴 수 있을 때 그는 研究目的을 제대로 叙述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問題提起란 제목 아래서는 一般的인 叙述을 通해서 커다란 問題를 提示하였지만, 研究目的이란 題目 下에서는 提起된 그 問題를 좀 더 具體的으로 重要的 부분을 絞집어서 작게 그러나 뚜렷하게 定義내려야 한다. 그러면 問題提起의 論議 때 주어진 韓國音樂史學 分野의 [보기] 1과 關聯해서 研究目的을 다음 [보기] 5에서 叙述해 보도록 한다.

(12) 註 2의 pp. 39-65 參照.

【보기 5】

現行 歌曲의 羽調는 『梁琴新譜』의 羽調처럼 黃鍾을 主音으로 하는 sol旋法이고, (13) 現行 歌曲의 界面調는 『梁琴新譜』의 羽調界面調처럼 黃鍾을 主音으로 하는 la旋法으로 왔지만 五音音階가 아니라 變型된 音階로 되었음 (14)이 李惠求博士에 의해서 糾明됐으며, 이러한 두 旋法理論이 오늘날 國樂概論書에서 널리 通用되고 있다. (15) 이 論文은 本人의 研究主題에서 다루려는 “A”라는 樂曲들을 分析하여 旋法の 歷史的 變遷 過程이 과연 現行 歌曲의 羽調와 界面調를 調査해서 얻은 結果와 一致하는지를 確認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旋法の 歷史的 變遷過程을 “A”라는 樂曲의 分析的 考察을 通해서 確認해 보고 오늘날 一般화된 旋法理論의 妥當性에 對하여 再調査하려는 바가 本研究의 目的이라고 하겠다.

【보기 5】에서 例示된 研究目的의 敘述은 【보기 1】에서 提示된 問題提起에서보다도 研究하고자 하는 問題의 定義를 작게 그러나 具體的으로 내려서 分明히 밝혀서 敘述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韓國民俗音樂學 分野에서 例示한 【보기 2】와 關聯하여 研究 目的의 敘述을 【보기 6】에서 試圖해 보려고 한다. 다음의 【보기 6】에서 敘述된 研究 目的에서 우리는 【보기 2】에서 주어진 問題提起 때보다도 研究者의 研究主題에 包含된 問題의 定義가 具體的으로 자세하게 내려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6】

民俗音樂의 여러 장르 가운데 특히 民謠의 旋法에 對한 研究는 韓國民俗音樂學의 다른 分野 研究보다도 보잘것 없는 形便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本人의 研究主題는 慶北地方 民謠의 音樂的 特徵 중에서 旋法の 特性을 찾아서 과연 두가지 旋法 이외 다른 旋法이 없을까? 라는 問題를 이번엔 蒐集된 資料의 分析的 研究를 通해서 밝혀보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韓國音樂學界에서 一般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두가지 旋法理論에 對한 假說의 妥當性을 確認하려는 바가 이번 研究의 目的이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研究目的 敘述이 分明한 問題 把握과 認織 下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 보았고, 이어서 韓國音樂史學 및 韓國民俗音樂學 이상 두 分野에서 뽑은 例示를 通해서 敘述方法을 試圖해 보았다. 그러면 研究目的 敘述에 이어서 研究計劃書에서 論議되어야 할 研究方法論 敘述에 關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차례이다.

4. 研究方法 敘述

윗 項目에서 우리는 왜 어떤 問題에 對해서 研究하려는가에 關하여 보기와 함께 論議를 하였으나, 여기서는 어떤 問題에 對한 研究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研究方法의 敘述에 對

(13) 李惠求, 『韓國音樂研究』, p. 71.

(14) 李惠求, 『韓國音樂序說』, p. 380.

(15) 註 11參照.

한 論議가 言及될 것이다. 위에서 研究目的의 說明 時에 주어진 旅行者의 比喻를 계속하여 이곳에서도 研究方法 敘述을 위해서 說明을 하면, 理解하기에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研究方法이란 旅行者가 目的地에 다다르기 위하여 어떠한 交通手段을 利用할 것이냐 하는 여러 種類의 交通手段에 比較될 수 있겠다. 가령 그가 海邊가에 가서 休息을 취하기로 作定하고 目的地를 濟州道로 決定했다고 假定하면, 濟州島라는 目的地에 이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木浦나 釜山까지 기차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갈 것이냐 하는 交通手段을 그는 다음으로 決心해야 할 것이다. 萬若 反對로 산속의 깊은 溪谷을 찾아 나서기로 맘을 먹고 俗離山 法住寺를 目的地로 作定했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 다다르기 위한 方法으로 일반 高速버스를 利用할 것인지 또는 렌트카(rent car)를 세내서 直接 운전을 할 것인지 아무튼 어떠한 交通手段을 利用할지를 決定해야 한다.

旅行 目的地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種類의 交通手段 중에서 한가지 또는 두가지를 選擇해야 하듯이, 研究主題에 對한 問題提起와 研究 目的을 敘述한 뒤 研究者는 그 問題의 解決을 爲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研究方法을 만드시 그의 研究計劃書에 簡略하게 그러나 要領 있게 敘述해야 한다. 自己의 研究主題에 包含된 問題를 分明하게 把握하고 있는 그가 研究 目的을 正確하게 說明한 이상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研究方法을 쉽게 發見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濟州島란 目的地에 이르는 交通手段으로 비행기 또는 기차와 배로 限定되어 있는 것과 比較될 수 있겠다.

比較(comparative)方法・歷史的(historical)方法・分析的(analytical)方法・統計的(statistical)方法・歸納的(inductive)方法・演繹的(deductive)方法・記述的(descriptive)方法・批評的(critical)方法 등이 研究 方法의 種類로 例示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研究方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研究主題에 包含된 問題 解決에 따라서 가장 效果的으로 研究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適合한 研究方法을 選擇해야 할 것이다. 俗離山의 法住寺라는 目的地에 다다르기 위하여 실제로 비행기보다도 자동차라는 交通手段이 適合하듯이, 가령 “가”라는 問題의 解決을 爲한 研究 目的을 達成하려면 比較方法이 統計的 方法이나 歷史的方法보다 效果的으로 適合하다고 判斷될 때, 그는 서슴없이 比較方法을 問題解決의 手段으로 삼겠다고 決定하고 研究計劃書에 그것을 明白히 밝혀야 한다.

위에서 言及된 일반적인 研究方法論 이외의 分析的方法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特定한 音樂學者가 開發한 分析方法을 그가 利用하려 한다가 아니면 自己 스스로 考案한 特殊한 分析方法을 使用하려고 할 경우에 그러한 分析方法을 研究計劃書에서는 要約해서 說明해야 하고, 그 대신 자세한 說明을 實際로 學位論文을 써 갈 때 本論에 앞서서 緒論에서 分明하

게 밝혀야 한다. 研究方法을 제대로 理解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叙述하지도 못하면서 研究目的을 잘 이룰 수 없음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研究方法論이나 特殊한 研究方法論이던지를 分明히 選擇하여 理解하고서 研究計劃書에다가 叙述해야 한다.

[보기 5]에서 주어진 研究目的의 達成을 위해서 그는 우선 여러 古樂書에서 蒐集한 “A”라는 樂曲을 分析하려면 5線譜에 譯譜해야 할 것이고 譯譜된 樂曲들을 分析 考察한 後 서로 比較함으로써 旋法의 變遷過程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音樂史學 分野에서 **[보기 5]**의 研究目的을 이루려면 比較分析의 方法이 가장 適合한 研究方法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다음의 **[보기 7]**에서 처럼 簡略하게나마 研究方法論이 그의 研究計劃書에 叙述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7]

本研究의 目的을 達成하려면, 서로 다른 時期에 編纂된 古樂譜에 記譜된 “A”라는 樂曲을 5線譜에 譯譜해서 比較分析의 方法으로 綿密하게 考察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作業 이전에 여러 古樂譜에서 거문고의 合字譜로 記譜된 樂曲을 正確한 解讀方法으로 5線譜에 採譜해야 할텐데, 이 때 合字譜의 解讀方法은 그 당시에 쓰인 玄琴의 調絃法과 演奏技法 및 合字法의 說明에 바탕을 둘 것이다.

위의 **[보기 7]**에서 比較分析의 方法에 對하여 紹介만 하고 따로 說明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研究方法이 이미 韓國音樂學界에서 널리 알려졌고 많이 쓰이고 있다는 까닭에서이다. 韓國音樂學 關係 論文에서 研究方法에 對한 言及이 序論에서 言及되지 않는 것도 그러한 까닭에서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研究計劃書에서 研究方法에 대한 言及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韓國民俗音樂學 分野에서 뽑은 **[보기 6]**에서 叙述된 研究目的에 對한 研究方法이 다음의 **[보기 8]**에서처럼 叙述될 수 있었다.

[보기 8]

慶北地方 民謠의 旋法을 糾明하려는 目的을 達成을 위하여 100餘曲의 民謠가 分析의 方法과 統計의 方法에 의해서 자세하게 考察될 것이다. 이러한 分析和 綜合 作業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現地調査 方法 및 民謠蒐集方法은 近來 口碑文學研究家들이 外國研究方法을 參考로 開發해 놓은 現地調査方法論⁽¹⁶⁾을 바탕으로 했으며, 採譜方法은 西洋音樂學界 및 우리 音樂學界에서 사용되고 있는 5線 採譜 方法에 根據 두고 있다.

[보기 8]에서 叙述된 研究方法은 研究計劃書에 包含된 것이므로 簡略하게 言及되었지만, 앞에서 言及했듯이 萬若 더 자세하게 論述할 必要 時에는 本論에 앞서서 研究者가 얼마든지 紙面을 裁量껏 配定하여 그가 使用한 現地調査 方法 및 經緯, 調査設問紙 形式, 分析方

(16) 註 9 參照.

法 등에 對해서 설명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5. 研究範圍 等 其他事項 叙述

우리는 지금까지 寫 項目에서 研究計劃書에 必須的으로 包含시켜야 할 問題提起 및 研究의 必要性, 研究目的, 研究方法 이상 세가지 事項에 對하여 설명과 例示를 列擧하면서 論議하였다. 主要 骨子和 說明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副次的인 그러나 역시 중요한 事項들이 論議되지 못하였다. 그것들은 研究主題의 限界를 밝혀야 하는 研究範圍, 研究主題와 關聯된 第2次 資料(secondary source material)인 研究論著에 對한 研究史概觀, 研究主題와 關係 있는 第1次 資料(primary source material)인 研究資料, 本論에서 使用될 特殊한 學術用語에 對한 用語 定義, 本論에서 展開해 나갈 큰 項目의 大略的 說明인 內容 概說 등에 對한 論議이다. 그런데 이러한 其他 事項들은 따로 項目을 만들어 說明하기에 곤란하여 여기서 함께 묶어 차례로 論議토록 하겠으며, 가능한 限에서 [보기]의 實例와 關係를 맺으면서 進行시키려고 한다.

첫째, 研究範圍란 스스로가 問題視해서 探究하고자 하는 研究主題의 限界를 가르킨다. 이런 研究範圍에 對한 分명한 言及을 問題提起 또는 研究目的을 叙述할 때에 適切한 곳에 包含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研究主題 選定時 留意事項의 두번째로 이미 다른 글에서 指摘되었듯이 “制限된 時間과 能力에 알맞는 研究主題로 좁고 작게 그러나 具體的으로 잡는 것이 賢明한 일이다”(17)라고 하였다. 自己의 研究主題에 包含된 問題를 어떻게 具體的으로 限定하였다는 研究範圍를 研究計劃書에 分明明히 밝혀야 한다. [보기] 5의 경우에서 本研究의 範圍는 “A”라는 樂曲에 限定될 것이며, “B”와 “C”란 樂曲에 對한 分析의 考察은 이번 研究에서 除外될 것이고, 다음 研究에서 따로 다루려고 한다고 明白하게 밝히면 된다. 그리고 [보기] 6의 경우에 慶尙北道 民謠라고 했지만, 全道의 資料가 골고루 蒐集되지 않았다면, 慶山郡 또는 月城郡 아니면 安東地方이나 奉化地方에 限定할 것이라고 自己 研究範圍를 뚜렷히 糾明하여야 한다.

둘째, 研究目的 叙述과 關聯 지어서 研究計劃書에 言及되어야 할 研究史 概觀에 對하여 생각해 보련다. 研究史 概觀이란 自己의 研究主題와 直接的으로 關係있는 이미 發表된 論著들을 年次的으로 概說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問題에 對해서 자기가 研究하고자 하는 目的을 제대로 叙述하려면, 그 問題와 關聯된 모든 論文이나 著書를 調査하고 論旨와 結論

(17) 註 2의 p. 47 參照.

을 正確히 把握한 이후에야 可能하다. 그러므로 文獻調查 過程에서 作成한 文獻目錄⁽¹⁸⁾에 記入한 要點을 차례로 羅列하면서 지금까지 成就한 研究의 限界와 앞으로 더욱 研究되어야 할 問題點을 指摘하는 이 過程을 研究史 概觀에서 叙述해야 한다. 大體로 研究史 概觀은 길어지는 경우가 常例이므로 研究計劃書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要領있게 추려서 研究目的 앞이나 뒤에 整理함으로써 自己가 研究하고자 하는 바를 뚜렷이 둔 보이게 할 수 있다. 韓國音樂史學 分野에 提示된 [보기] 1에 關聯된 研究史 概觀은 이미 簡略하게나마 問題提起 때 주어졌고 그 이후 研究目的의 叙述 때에도 言及되었기 때문에 다시 反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韓國民俗音樂學 分野와 關聯된 [보기] 2의 경우에 研究方法이나 研究目的의 叙述 때 研究史 概觀을 결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자기 研究主題와 關係있는 民謠의 旋法에 關한 論議가 몇 사람에게 依해서 이미 發表⁽¹⁹⁾되었기 때문이다. 研究史概觀 때 그는 先學이 아주 제한된 표본조사에 바탕을 두고 民謠圈 理論을 展開하려는 方法論的 妥當性 與否를 指摘하고, 좀 더 體系的인 표본조사와 정밀조사가 現地踏查 過程에서 있어야함을 強調하면서 自己 研究主題에 따르는 研究의 意義를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세째, 研究主題와 關聯된 第1次 研究資料는 韓國音樂史學의 경우에 古樂譜·樂書·歷史文獻 등이 겹치며, 民俗音樂學의 境遇에는 現地에서 錄音한 테잎이나 蒐集된 其他資料 등이 겹치다. 그러므로 [보기] 7에서 “A”라는 樂曲이 記譜된 『梁琴新譜』 이후의 古樂譜로 『琴譜新證假令』·『玄琴東文類記』·『遊藝志』·『白雲庵琴譜』·『三竹琴譜』·『玄琴五音總論』 등이 研究資料로 사용되었음이 研究計劃書에 밝혀져야 할 것이며, [보기] 8의 경우에 研究資料로 錄音된 카세트잎·寫眞 등을 分明하게 叙述해야 할 것이다.

네째, 用語 定義란 本論에서 論旨로 展開해 갈 때 研究者에 의해서 使用된 特殊한 音樂術語나 學術用語에 대한 概念을 明白히 밝히는 것을 意味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音樂術語를 그가 使用했다면 그것은 여기에 該當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用語라도 조금 다른 意味로 그의 論文에서 쓰고자할 때에는 그의 研究計劃書에서 그는 반드시 그 用語의 定義를 내려야 한다. 分明한 用語의 定義가 言及되지 않았을 때 그의 意圖나 說明을 讀者들에게 또는 指導教授에게 傳達할 수도 없겠고 混同을 超來하는 까닭에서이다. 가령 羽調의 界面調⁽²⁰⁾라는 用語를 그가 使用하려고 한다면, 羽調의 羽調한 말의 概念을 分明하게 定義

(18) 이것에 대한 설명은 註 2의 pp.55-59에서 자세히 주어짐.

(19) 實例를 들면, 李輔亨, “매나리조(山有花制),” 『韓國音樂研究』(서울: 韓國國樂學會, 1972), 第2輯, pp.111-31 및 韓萬榮, “太白山脈以東地方의 民謠 旋法의 研究,” 『藝術論文集』(서울: 大韓民國 藝術院, 1973), 第12輯, pp.121-47.

(20) 이러한 用語는 平調의 界面調라는 말과 함께 李在淑, “伽倻琴散調의 틀에 對한 小考,” 『李惠求博士頌壽記念音樂論叢』(서울: 韓國國樂學會, 1969), pp.148-151에서 쓰인 바 있다. 여기서 讀者들은 本人의 用語 定義를 說明하기 爲하여 보기로서 뽑아서 例示한 것 뿐이며 그의 論文을 批評하고자 함이 아니라 점에 留意하기를 바란다.

내려야 한다. 萬若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用語의 概念이 歌曲의 羽調라는 뜻인지 관소리나 散調에서 쓰이고 있는 羽調라는 意味인지를 제대로 把握할 수 없겠고, 따라서 研究者의 意圖가 讀者들에게 確實하게 傳達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다섯째, 그의 研究計劃書에 包含될 事項으로서 本論에서 展開될 차례가 簡略하게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內容 概說이라는 것이다. 內容을 概說할 때 章 또는 節에 該當되는 부분에 반드시 包含되어야 하며 그 아래 小項目은 省略되어도 좋다. 가령 “廣大”가 朝鮮後期の 音樂史에 미친 影響⁽²¹⁾이란 研究主題로 준비된 概要作成 案에서 包含된 큰 項目 즉 I. 廣大의 語意, II. 廣大의 起源에 關한 歷史的 考察, III. 朝鮮後期の 廣大와 民俗音樂 이상 本論에서 展開할 줄거리인 세가지가 簡略한 說明과 함께 內容 概說로 叙述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論議된 다섯가지 事項은 研究者의 意圖나 研究主題의 境遇에 따라서 問題提起 · 研究目的 · 研究方法의 叙述 때 適切하게 그것과 關聯시켜서 함께 包含될 수도 있고, 따로 한 두 단락으로 說明하여 위의 세가지 主要 骨子を 補充해서 研究計劃書에 包含시킬 수도 있다. 위에서 言及되지 않은 事項으로서 特殊한 研究主題에 따라서 그의 研究計劃書에 꼭 넣어야 할 事項도 생길 것임은 勿論이겠으며, 그것이 위의 다섯가지 事項 中 어느 것을 代身해서 叙述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強調되어야 할 일은 研究者 自身이 위에 列擧된 다섯가지 事項의 意味를 充分히 理解하고서 그것을 論理的인 思考로 그의 研究計劃書에서 說得力 있게 잘 叙述해야 할 것과 나중에 實際로 學位論文을 作成할 때 그것들을 結論에서 올바르게 反映시켜야 하는 것이다.

6. 마 무 리

韓國音樂學을 專攻하고 있는 大學生들에게 研究活動에 躑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研究計劃書 作成 要領을 問題提起 · 研究目的 · 研究方法 · 其他 事項 이상 네가지로 나누어 위에서 論議하였다. 各項의 內容을 理解하기 쉽도록 比喻와 例示를 들어 說明하였지만, 누차 밝혔듯이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假想한 論題라는 前提 아래서 주어진 論議에 不過한 答답으로 參考에 머무를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研究主題를 이미 選定한 大學生이나 아니면 앞으로 碩士學位論文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위에서 論議된 차례대로 實際로 研究해야 할 問題와 主題를 論理的으로 생각하고 研究計劃書를 作成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는 자기가 研究하고자 하는 主題와 問題에 따르는 目的 · 方法 · 範圍 등을 論理性 있게 整理해 보는 經驗을 갖게 될 것이며, 그 經驗이 次後에 碩士學位論文을 實際로 叙

(21) 註 2의 p. 64 參照.

述할 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머리말에서 이미 言及되었듯이 研究計劃書란 美國大學校의 경우에 大學生이 指導教授에게 碩士學位 論文 作成을 爲한 研究申請(research proposal)의 妥當性を 認定받으려고 作成되는 글이지만, 서울大學校 音樂大學의 境遇에서처럼 아직 우리나라의 大學院에서는 本來의 뜻에서 研究計劃書가 要求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머잖아 우리나라 大學院 履修過程에서도 그것이 大學生들에게 要求될 날이 올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현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研究計劃書에 包含되는 모든 事項들이 碩士學位論文的 緒論에 대부분 包含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作成하면서 훈련 받은 思考 能力과 知識 및 經驗은 論文作成時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筆者가 研究計劃書 作成要領을 여기서 試圖하게 된 것도 事實 大學生 各者가 碩士學位論文的 緒論을 쓰는 過程을 練習시키려는 숨은 뜻에서였다.

研究計劃書を 위에서 論議된 차례대로 作成하여 指導教授에게 提出할 수 있는 大學生은 碩士學位論文的 緒論·本論·結論의 論理的 叙述을 쉽사리 감당할 能力을 갖는 사람으로 보아도 無坊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主要한 內容을 잘 理解하고서 얻는 論理的 思考와 知識을 바탕으로 自己의 研究計劃書を 成功的으로 作成한 大學生은 남보다 그만큼 그의 研究活動 및 研究結果 報告書 作成에 自信感을 갖게 될 것이며 碩士學位過程에서 最終的으로 要求되는 碩士論文을 비교적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論議된 이 글이 韓國音樂學의 發展을 두 어깨에 메고나갈 後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1980. 11. 23)

《附 錄》

McCune-Reischauer System에 의한 한글의 로마字表記法

筆者註: McCune-Reischauer system은 본래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upon its Phonetic Structure"라는 제목으로 G.M. McCune과 E.O. Reischauer 두 분에 의해서 1939년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Vol. 39, pp. 1-55에 처음으로發表되었다. 나중에 본래의 論文에서 要點만을 추려서 整理된 McCune-Reischauer System이 "The Romanization of Korean According to the McCune-Reischauer System"이란 제목 아래 같은 책(Seoul, 1961), Vol. 38, pp. 119-28에 紹介되었다. 여기에 紹介하는 것은 1961년에 발표된 것을 바탕으로 첫번 것을 참고하여 作成된 것임을 밝혀 둔다. 머리말에서 잠시 言及되었듯이 McCune-Reischauer system은 美國의 軍事·政治·文學·歷史 分野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며, 韓國語의 McCune-Reischauer system은 中國語의 Wade-Giles system 및 日本語의 Hepburns System 또는 Kenkyusha's system과 함께 西洋의 大學案과 東洋學界에서도 公式의 認定되어 使用되고 있다. 우리나라 碩士나 博士學位論文의 英文概要가 西洋學者들을 念頭에 두고서 作成되었다면, 文敎部에서 제정한 로마字表記法보다도 그들에게 親熟한 McCune-Reischauer system으로 表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 McCune-Reischauer System의 原則

1. 이 system은 文章의 글자대로 表記하지 않았으며 그 글자의 發音을 바탕으로 表記한다. 즉 한글의 文字와 실제 發音 사이에서 약간 다른 경우에 이 表記法은 實際 發音을 따른다.

〔보기 1〕

	文章의 文字(틀림)		實際의 發音(옳음)	
목민심서(牧民心書)	Mokmin simsö		Mongmin simsö	
신라(新羅)	Sinra		Silla	
변란(變亂)	Pyörran		Pyöllan	

2. 라틴 알파벳 글자의 音聲의 價値(phonetic value)에 대한 基準은 中國語의 Wade-Giles system이나 日本語의 Hepburn system에서처럼 이태리語의 母音과 英語의 子音에 準한다.

3. 한글에서 쓰인 母音의 숫자가 라틴 알파벳보다 많기 때문에, 라틴語에 없는 母音 ㅓ와 ㅡ는 다음과 같이 조그마한 符號로 表示되어 區別된다. 즉 ㅓ는 ö로 表記하며 ㅓ(o)와 區別되고, ㅡ는 ü로 表記하여 ㅓ(u)와 區別된다.

〔보기 2〕

어머니	ömöni	오빠	oppa
아버지	aböji	오늘	onül
슬프다	sülp'üda	우산	usan
그릇	kürüt	우렁이	uröngi

4. 한글의 子音은 글자나 文章에 따라서 다르게 發音된다. 그러므로 로마字表記法은 그 子音의 發

음이 따른다. 즉 큰 은 文章이나 낱말의 發音대로 r, l, n으로 表記되기도 하며, ㄱ은 k, g, ng로 表記되기도 한다.

〔보기 3〕

신라(新羅)	Silla	박물관(博物館)	pangmulgwan
사례(謝禮)	Sarye	고기	kogi
암록강	Amnokkang	옥돌	oktol

5. 센소리의 子音은 어퍼스트리피(apostrophe)로 表示된다.

〔보기 4〕

파랑새	p'arangsae	태극기	t'aegŭkki
칭찬	ch'ingch'an	칼자루	k'aljaru

6. 어퍼스트리피(apostrophe)는 n과 g가 한소리 ng(o)로 發音되지 않고 두 字로 따로 나뉘을 때에도 사용된다.

〔보기 5〕

한국음악	Han'guk ūmak	한강(漢江)	Han'gang
한글	Han'gŭl	군기사(軍器寺)	Kun'gisa
대원군(大院君)	Taewŏn'gun	단골	tan'gol
유산가(遊山歌)	Yusan'ga		

7. 두 말이 한 單語로 쓰일 경우에 그 말 사이는 하이픈(hyphen)으로 表示된다. 그러나 固有名詞는 하이픈으로 分離되지 않는다.

〔보기 6〕

덕수궁(德壽宮)	Töksu-gung	해인사(海印寺)	Haein-sa
불국사(佛國寺)	Pulguk-sa	지리산(地理山)	Chiri-san
영중추부사(領中樞府使)	Yöngjungch'ubusa	악학별과(樂學別坐)	Akhak-pyöljwa

8. 된소리 ㄱ·ㄷ·ㅂ·ㅈ은 kk, tt, tch로 表記된다.

〔보기 7〕

까치	kkach'i	짜장면	tchajangmyön
빨강	ppalgang	딸	ttal

9. ㅏ(ae)나 ㅑ(oe)처럼 한소리를 나타내는 두 母音이 아니고 a와 e가 또는 o와 e가 따로 떨어진 母音일 경우에 e 위에 分音記號(diaereis)인 ㅅ가 쓰인다.

〔보기 8〕

공자(孔子)에게	Konjaëge	소(牛)에게	soëge
물가에 가다	mulgaë kada		

10. 다음은 지금까지 論議된 法則을 바탕으로 한글 문장을 발음대로 表記한 것이다.

〔보기 9〕

한글 운동은 연산군 조에 이르러 큰 액운을 당하였다.
 Han'gŭl undongŭn Yönsan-gun choë irürö k'ün aegunŭl tanghayötta.

II. 字音과 字音 사이에서 變하는 不規則한 實例

1. ㄹ은 ㅎ 앞에서 r로 表記된다.

【보기 1】

백일홍	paegirhong	굴하다	kurhada
줄행랑	churhaengnang	칠하다	ch'irhada

2. ㄹ은 ㄱ·ㄴ·ㄷ·ㅇ 다음에 n으로 表記된다.

【보기 2】

착란(錯亂)	ch'angnan	감탄사	kamt'ansa
종로(鍾路)	Chongno	급료(給料)	kŭmnyo

3. ㄴ은 ㄹ 앞 또는 뒤에서 l로 表記된다.

【보기 3】

언락(言樂)	Öllak	신라(新羅)	Silla	곤란(困難)	kollan
--------	-------	--------	-------	--------	--------

4. ㄱ·ㄷ·ㅂ은 ㄴ·ㄹ·ㅁ 앞에서 ng, n, m으로 表記된다.

【보기 4】

국민	kungmin	박물관	pangmulgwan
작란	changnan	급류(急流)	kŭmnyu
톤나다	tonnada	막내	mangnae
풍류(風流)	p'ungnyu		

5. ㄱ·ㄷ·ㅂ·ㅈ은 ㄴ·ㄹ·ㅇ 뒤에서 g, d, b, j로 表記되고, ㄱ·ㅂ은 ㄹ 뒤에서 g, b로 表記된다.

【보기 5】

종각(鍾閣)	chonggak	골방	kolbang
간밤	kanbam	물건	mulgŏn
천지(天地)	ch'ŏnji	공자(孔子)	kongja
감자	kamja		

6. 母音 뒤에 오는 사이 ㅅ은 다음에 따르는 字音대로 表記된다.

【보기 6】

뒤틀산	twissan	뒤틀간	twikkan
훑소리	hossori	긑거리	kukkŏri
웃사람	ussaram		

7. ㄷ·ㅎ은 ㅅ 앞에서 s로 表記된다.

쑤소	chosso	곶소이다	kossoida
----	--------	------	----------

8. ㄱ·ㄹ·ㅈ 앞에 쓰인 ㅎ은 다음 첫자 다음에 아포스트로피(apostrophe)를 붙여 表記한다.

【보기 8】

얇다	alt'a	쑤다	chot'a
쑤지	choch'i	그렇지	kurŏch'i

9. ㅂ·ㄷ·ㄹ이 ㅎ과 합하는 경우에 nch', lk', lp'로 表記된다.

【보기 9】

불히다 pulk'ida 밝히다 palk'ida
 넓히다 nŏlp'ida 앉히다 anch'ida

III. McCune-Reischauer System을 모두 整理한 子母音 圖表

Simplified Table

[Sufficient for the transcription of most proper names]

Initial Final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ㅇ		
	* ¹	K	N	T	(R)	M	P	S ²	CH	CH'	K'	T'	P'	H	
ㄱ	K	G	KK	NGN	KT	NGN	NGM	KP	KS	KCH	KCH'	KK'	KT'	KP'	KN
ㄴ	N	N	N'G	NN	ND	LL	NM	NB	NS	NJ	NCH'	NK'	NT'	NP'	NH
ㄹ	L	R	LG	LL	LT	LL	LM	LB	LS	LCH	LCH'	LK'	LT'	LP'	RH
ㅁ	M	M	MG	MN	MD	MN	MM	MB	MS	MJ	MCH'	MK'	MT'	MP'	MH
ㅂ	P	B	PK	MN	PT	MN	MM	PP	PS	PCH	PCH'	PK'	PT'	PP'	PH
ㅇ	NG	NG	NGG	NGN	NGD	NGN	NGM	NGB	NGS	NGJ	^{NGC} _H	NGK'	NGT'	NGP'	NGH

1. A consonant between two vowels is transcribed with its initial value except that ㄱ is G, ㄷ is D, ㅂ is B, and ㅅ is J.
2. ㅅ is romanized SHWI.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a	ya	o	yō	o	yo	u	yu	ü	i	wa	wō	ae	e	oe	wi	üi	wae	we	yae	ye

IV. 韓國音樂用語 實例

筆者註：지금까지 論議된 McCune-Reischauer system의 로마자 表記法을 바탕으로 많이 쓰이는 音樂用語를 로마자로 表記하여 參考資料로 提示코져 한다. 여기에 表記된 實例들은 張師勳博士의 『國樂總論』(서울：正音社, 1976), pp. 571-92에서 拔萃한 것들임을 밝혀둔다.

1. 樂 曲 名

가곡	Kagok	경북궁타령	Kyōngbokkungt'aryōng
가락덜이	Karaktōri	계면두거	Kyemyōn tugō
가사	Kasa	공명가	Kongmyōngga
가야고산조	Kayago Sanjo	군악	Kunak
강강술레	Kanggangsulle	굿거리	Kukkōri
거문고산조	Kōmun'go sanjo	금전락	Kūmjōllak
거문고회상	Kōmun'gohoesang	기생타령	Kisaengt'aryōng

길군악	Kilgunak	속영 낭자전	Sugyöngnangjajön
낙양춘	Nagyangch'un	시나위	Sinawi
납씨가	Napssiga	시조	Sijo
노들강변	Nodülgangbyön	십청가	Simch'öngga
농부가	Nongbuga	십장가	Sipchangga
농악	Nongak	아리랑	Arirang
달거리	Talgöri	앞산타령	Apsant'aryöng
대취타	Taech'wit'a	양산도	Yangsando
도라지타령	Torajit'aryöng	양청환입	Yangch'öng hwanip
두거	Tugö	언락	Öllak
뒷산타령	Twissant'aryöng	언릉	Öllong
만년장환지곡	Mannyönjanghwanjigok	언편	Öllp'yön
만전춘	Manjönch'un	엇시조	Össijo
매화타령	Maehwat'aryöng	여민락	Yömillak
명안지악	Myönganjiak	워음아리랑	Yökküm Arirang
몽금척	Monggümch'ök	염불환입	Yömbul hwanip
미환입	Mihwanip	영산회상	Yöngsan hoesang
민요	minyö	오봉산타령	Obongsant'aryöng
밀도드리	Mittodüri	용비어천가	Yongbiöch'on'ga
박연폭포	Pagyönp'okp'o	우락	Urak
방아타령	Pangat'aryöng	우조가락환입	Ujo Karakhwanip
뱃노래	Paennorae	웃도드리	Uttodüri
별곡	Pyölgok	유산가	Yusan'ga
보림	Poryöm	유초신지곡	Yuch'osinjigok
보태평	Pot'aep'yöng	육자배기	Yukchabaegi
보허자	Pohöja	응안지악	Ünganjiak
빛가락정음	Pikkarak Chöngüp	이수대엽	Isudaeyöp
사발가	Sabalga	잔도들이	Chandodüri
삭대엽	Saktaeyöp	장춘불로지곡	Changch'unbullojigok
산조	Sanjo	잡은한잎	Chajünhanip
살푸리	Salp'uri	적벽가	Chökp'yökka
삼현환입	Samhyön hwanip	정대엽	Chöngdaeöp
상영산	Sangyöngsan	정상지곡	Chöngsangjigok
새타령	Saet'aryöng	정선아리랑	Chöngsön Arirang
서경별곡	Sögyöngbyölgok	정음	Chöngüp
선유가	Sönyuga	제비가	Chebiga
세령산	Seryöngsan	죽지사	Chukchisa
세환입	Sehwanip	중광지곡	Chunggwangjigok
소용	Soyong	중대엽	Chungdaeyöp
수룡음	Suryongüm	중영산	Chungyöngsan
수심가	Susimga	진도아리랑	Chindo Arirang
수제천	Sujech'ön	집장가	Chipchangga

창부타령	Ch'angbu t'aryōng	평조희상	P'yōngjo hoesang
처사가	Ch'ōsaga	표경만방지곡	P'yojōngmanbangjigok
청산별곡	Ch'ōngsanbyōlgok	풍입송	P'ungipsōng
청성잡은한잎	Ch'ōngsōng Chajūnhanip	하현환입	Hahyōn hwanip
초수대엽	Ch'osudaeyōp	한강수타령	Han'gangsut'aryōng
춘면곡	Ch'unmyōn'gok	해령	Haeryōng
춘향가	Ch'unhyangga	허튼타령	Hōt'unt'aryōng
취타	Ch'wnit'a	현미	Hyōnmi
치화평	Ch'ihwap'yōng	형장가	Hyōngjangga
캐지나칭칭	K'waejinach'ingch'ing	화룡도	Hwaryongdo
타령	T'aryōng	화초사거리	Hwach'osagōri
태평가	T'aep'yōngga	환계락	Hwan'gyerak
토끼타령	T'okkit'aryōng	황계사	Hwanggyesa
판소리	P'ansori	휘몰이	Hwimori
편락	P'yōllak	휴명	Hyumyōng
편수대엽	P'yōnsudaeyōp	흥부가	Hūngbuga
평룡	P'yōngrong	희문	Hūimun

2. 樂 器 名

가야고	kayago	바라	para
가야금	kayagūm	박	pak
갈고	kalgo	방향	panghyang
거문고	kōmun'go	부	pu
진고	kōn'go	북	puk
공후	konghu	비파	pip'a
관	kwan	삭고	sakko
교방고	kyobanggo	생황	saenghwang
금	kūm	세피리	sep'iri
쟁매기	kkaengmaegi	소	so
나각	nagak	소고	sogo
나발	nabal	소금	sogūm
날라리	nallari	쇄납	swaenap
노고	nogo	수공후	sugonghu
뇌고	noego	슬	sul
단소	tanso	아쟁	ajaeng
당비파	tangbip'a	약	yak
당적	tangjōk	양금	yanggūm
당피리	tangp'iri	어	ō
대고	taego	영고	yōnggo
대금	taegūm	와공후	wagonghu
동발	tongbal	용고	yonggo

우	u	축	ch'uk
운라	ulla	태평소	t'aep'yōngso
월금	wōlgŭm	통소	t'ongso
응고	ŭnggo	특경	t'ŭkkyōng
자바라	chabara	특종	t'ŭkchong
장구	changgu	편경	p'yōn'gyōng
적	chōk	편종	p'yōnjong
절고	chōlgo	피리	p'iri
젓대	chōttae	해금	haegŭm
좌고	chwago	향비파	hyangbip'a
중금	chunggŭm	향피리	hyangp'iri
지	chi	현금	hyōn'gŭm
진고	chŭn'go	호적	hojōk
징	ching	화	hwa
초적	ch'ojōk	훈	hun

3. 樂 人 名

강태홍	Kang T'ae-hong	심상전	Sim Sang-gōn
김경남	Kim Kyōng-nam	안민영	An Min-yōng
김수장	Kim Su-jang	양덕수	Yang Tōk-su
김윤덕	Kim Yun-dōk	염계달	Yōm Kye-dal
김죽파	Kim Chuk-p'a	이동백	Yi Tong-baek
김창조	Kim Ch'ang-jo	이병성	Yi Pyōng-sōng
명완벽	Myōng Wan-byōk	이주환	Yi Chu-hwan
박상근	Pak Sang-gŭn	임기준	Im Ki-jun
박석기	Pak Sōk-ki	장우벽	Chang U-byōk
박연	Pak Yōn	정약대	Chōng Yak-tae
박춘재	Pak Ch'un-jae	조의순	Cho Ŭi-sun
박효관	Pak Hyo-gwān	최순영	Ch'oe Sun-yōng
백낙준	Paek Nak-chun	추교신	Ch'u Kyo-sin
서유구	Sō Yu-gu	하규일	Ha Kyu-il
송홍록	Song Hŭng-nok	한갑득	Han Kap-tŭk
신재효	Sin Chae-hyo	함화진	Ham Hwa-jin
신쾌동	Sin K'wae-dong	황종순	Hwang Chong-sun

4. 音 樂 術 語

가성	kasōng	계면조	kyemyōnjo
걸채비 소리	kōtch'aebi sori	고수	kosu
경드름	kyōngdŭrŭm	고취악	koch'wiak
경제	kyōngje	공척보	kongch'ōkpo

패상청	kwaesangch'ōng	삼현육각	samhyōnyukkak
구음	kuūm	상쇠	sangsoe
국악	kugak	서도소리	Sōdosori
국악기	kugakki	서편제	Sōp'yōnje
굿거리	kukkōri	선소리	sōnsori
권마성	kwōnmasōng	설령제	sollōngje
금보	kūmbo	세마치	semach'i
기보법	kibobōp	수심가조	susimgajo
낙시조	naksijo	술대	suldae
남창	namch'ang	시조	sijo
내포제	naep'oje	시창	sich'ang
농악장단	nongak changdan	십이율명	sibiyulmyōng
농현법	nonghyōnbōp	쌀깎	ssalkkaeng
단가	tan'ga	아니리	aniri
당악	tangak	아악	aak
대성아악	Taesōng aak	악기	akki
대풍류	Taep'ungnyu	안죽	anjok
도들이	todūri	안채비소리	anch'aebi sori
동편제	tongp'yōnje	양칭	yangch'ōng
된삼채	toensamch'ae	엇율음	ōnyōkkūm
뒹소리	twissori	여창	yōch'ang
등가	tūngga	연음표	yōnūmp'yo
막조	makcho	영제	yōngje
만대엽	Mandaeyōp	오음약보	ōmyakpo
만수받이	mansubadi	오지	oji
무고	mugo	완제	wanje
무악	muak	외마치	oemach'i
문묘제례악	munmyo cheryeak	요성법	yosōngbōp
민속악	minsogak	우조	ujo
민요	minyō	유현	yuhyōn
발림	pallim	육보	yukpo
법패	pōmp'ae	율명	yulmyōng
변조	pyōnjo	율자보	yuljabo
봉미	pongmi	이조	ijo
부쇠	pusoe	일무	ilmu
부정거리	pujōnggōri	입창	ipch'ang
사악	saak	잡가	chapka
사지	saji	장단	changdan
삭대엽	saktaeyōp	잡은가락	chajūn'garak
산조	sanjo	잡은몰이	chajūnmori
삼죽	samjuk	전성법	chōnsōngbōp

전조	chǒnjo
정간보	chǒngganbo
정악	chǒnggak
제례악	cheryeak
제마수	chemasu
조	cho
조현법	chohyǒnbǒp
종묘제례악	Chongmyo cheryeak
줄풍류	chulp'ungnyu
중고계	chunggoje
중모리	chungmorj
중중모리	chungjungmori
지름시조	chirŭmsijo
진양조	chinyangjo
깃소리	chissori
창극	ch'anggŭk
창사	ch'angsa
창악	ch'angak
채	ch'ae
청보장단	ch'ǒngbo changdan
추입새	ch'uimsae
취악	ch'wiak
취타	ch'wit'a
치조	ch'ijo

칠지	ch'ilji
타령장단	t'aryǒng changdan
탄법	t'anbǒp
퇴성법	t'oesǒngbǒp
판소리	p'ansori
팔일무	p'alilmu
평조	p'yǒngjo
피리	p'iri
하청	hach'ǒng
합악	habak
합자보	hapchabo
행악	haengak
향악	hyangak
향제	hyangje
허덜품	hǒdǒlp'um
헌가악	hǒn'gaak
현법	hyǒnbǒp
훗소리	hossori
화청	hwach'ǒng
환입	hwanip
회례악	hoeryeak
후주	huju
취금	hwigŭm